

예측불허 초접전지 전국 60곳 달해

야 공천 잡음 논란...여 보수층 결집 새누리 48곳·민주통합 49곳 '우세'

4·11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초박빙지역이 전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팎인 격전지들이 60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등록 후부터 지난 4일까지 중앙·지방의 40개 언론사가 175개 선거구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우세지역이 48곳, 민주통합당 우세는 49곳으로 나타났다. 후보등록 후부터 지난 4일까지 중앙·지방의 40개 언론사가 175개 선거구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우세지역이 48곳, 민주통합당 우세는 49곳으로 나타났다. 후보등록 후부터 지난 4일까지 중앙·지방의 40개 언론사가 175개 선거구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우세지역이 48곳, 민주통합당 우세는 49곳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와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는 37.6%, 34.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 승패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영남=부산일보가 3~4일 실시한 여론조사(각 500명,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는 부산진갑에서 민주당 김영춘(26.3%), 무소속 정근(26.2%), 새누리당 나성린(25.1%)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김해갑, 김해을, 거제 등이 접전지역이다. 해럴드경제가 1~3일 실시한 여론조사(각 500명,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는 김해을에서 민주당 김경수(44.6%) 후보가 새누리당 김태호(41.0%)에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부산일보의 조사에서는 김태호(40.5%) 후보가 김경수(38.3%) 후보를 2.2%포인트 차이로 리드했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향·노원갑·구로갑·관악갑·관악을·강동을 등도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곳으로 꼽힌다. 중앙일보가 지난 3일 실시한 여론조사(선거구별 600명, 오차범위는 95%에 신뢰수준 ±4.0%포인트)에서 동대문구의 새누리당 홍준표(43.8%) 후보와 민주통합당 민병두(39.6%)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4.2%포인트에 불과했다. 앞서 KBS·MBC·SBS 방송 3사의 문화일보가 5일 분석했다. 이어 경향지역은 44곳, 새누리당 경합우세는 18곳, 민주통합당 경합우세는 10곳, 무소속 우세 등 기타지역은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종로·중구·광진갑·동대문을·종각을·도봉을·서대문갑·양천갑·강서갑·강서을·영등포을·송파병 등에서 피 말리는 대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또 동대문갑·중랑갑·성북갑· <인천·경기=인천 남동갑과 남동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5일 무소속 이병훈 광주 동구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이 후보를 격려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야권연대 후보인 광주 서구 을 통합진보당 오병문 후보와 광주 서구 갑 민주통합당 박해자 후보 지원유세도 펼쳤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박 6일·춧불 유세·도보 투어 “잘 시간이 어딴나” ‘2당 3락’ 강행군

4·11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유권자 접촉을 최대한 늘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 격전지의 경우 판세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유권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시간 자면 당선되고 5시간 자면 낙선한다'는 '4당5락'도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다. 대부분의 후보는 새벽 4시에 일과를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에 선거운동을 마치는 등 '2당3락'의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아예 선거 일주일 전부터 밤을 새는 후보들도 있다. 무소속 송갑석(광주 서구 갑) 후보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무박 6일'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송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됐던 지난 1990년 당시 전대협 의장으로 안기부에 체포돼 남산의 지하실에서 6일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다"며 "꿈수공천으로 짓밟힌 서구민의 자존심

과 민간인 불법사찰로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무박 6일'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 기간 동안 소음 피해 및 민원을 줄이기 위해 몇몇 운동원들과 함께 상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야권연대 단일후보와 맞붙는 새누리당 이정현 광주 서구 을 후보는 최근 20일 간 매일 2~3시간만 눈을 부치는 등 강행군을 펼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김경진(광주 북구 갑) 후보는 '춧불 유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지자 50여 명과 함께 새벽 2시까지 춧불을 들고 인근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후보는 유권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지난 4일부터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걷는 '민심 속으로 도보 투어'를 시작했다. 유세 보다는 선거구 전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다 가까이에서 현장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표본 한계, 조사방법·응답률따라 큰 편차

■ 여론조사 들쭉날쭉 왜

4·11 총선을 앞두고 연일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지만,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커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선거과정에서 표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여론조사의 지지율 수치가 조사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거나 때로는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해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층 표심이 분주히 움직이는 탓도 있지만, 표본을 정확히 뽑아내지 못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조사기관마다 조사방법과 대

상, 응답률, 조사시간이 달라 차이가 확대·재생산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경력 등 후보자 직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경력 없이 기호순으로만 조사를 진행해도 지지율 편차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서울 영등포갑의 경우 방송 3사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35.1%)가 민주통합당 김영주 후보(30.3%)를 3.8%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1일 조사는 김 후보(42.6%)가 박 후보(32.8%)를 9.8%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방송 3사는 집 전화로 사용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반면 중앙일보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 패널을 섞어 실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서구 갑 선거구의 경우 전남일보가 지난 4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무소속 조영택 후보가 25.3%로, 20.8%인 민주통합당 박해자 후보를 앞섰지만, 본보가 4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박 후보(35.4%)가 조 후보(15.5%)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방식과 시기는 비슷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설문지에 후보자들의 경력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차이"라며 "광주일보 조사의 경우 투표일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력 등의 직함 없이 정당과 후보 이름만을 넣었기 때문에 후보를 잘 모르는 응답자들이 정당만 듣고 지지의사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최고 '바쁘다 바빠'

후보들 지원 유세 광폭행보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국회 회기가 아닌 총선 기간에도 '금귀 월래(금요일 귀향, 월요일 귀경)'의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이 자신의 총선 당락이 걸린 선거 기간에도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만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금귀월래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빗발치는 지원 유세 요청 때문이다. 실제로 박 최고위원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부터 공천 과문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구 민주계 당원들과 호남 향우들의 민심을 다독이며 민주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접전 지역은 1000표 내외에서 승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 최고위원의 지원 유세는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 민주통합당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조금 앞서고 있는지만 접전이라는 점에서 승리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박 최고위원의 지원 유세를 계기로 호남 향우들과 구 민주계 당원들이 마을을 열고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광폭 행보는 호남과 수도권을 넘어 강원과 충청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태백 등 강원 지역을 돌면서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민주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원 유세 속에서 박 최고위원도 몸 고생은 물론 마음 고생도 툭툭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공천 결과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지원 유세에 나선 박 최고위원에 섭섭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